

은행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취약차주 중심 신용위험 경계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발표

3분기 국내은행 대출태도 강화 기조 지속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 3분기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등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가격 상승에 가계대출 수요가 3분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가계의 신용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지수는 -3으로, 가계대출 중심으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수(100~-100)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며, 플러스(+)면 그 반대다. 이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총 201개 금융기관의 여신총괄 책임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3분기 가계는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들의 3분기 가계 주택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18로 전분기(-9)보다 강화 추세를 나타냈다. 가계 일반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도 -18로 전분기(0)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 은행분 석팀장은 "3분기중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강화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이 작용했다. 이달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 확대 시행된 만큼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분기보다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용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들이 자금줄을 조이고 있는 것은 가계 전반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은행이 보는 3분기 가계 신용위험 전망지수는 18로, 전분기(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취약차주 중심으로 소득개선 지연이 우려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 등이 작용해왔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15로 전분기(18)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기업 신용위험도는 올해 2분기(6)에서 올 3분기 -3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감소 전망이 예상된다.

은행들의 대출 태도는 차주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3분기중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분기와 같았다. 반면 3분기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3으로, 전분기(9)보다 낮아졌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영향 때문이다.

가계의 대출수요는 주택 및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 자금 수요는 6으로 전분기(0)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



자금 수요는 DSR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0으로 중립 수준을 보였다.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비은행권의 대출태도는 상호저축은행(-12), 신용카드회사(-13), 상호금융조합(-22), 생명보험회사(-5) 등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것

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생명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 여신건전성 관리 등에 따라 대출태도를 강화할 전망이며, 신용카드회사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대출규제 등에 따라 대출태도를 강화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오유나 기자

전주 비빔밥 명성 그대로...비빔빵이여 비빔면 출시

전주농생명소재연, 지역 쌀·밀 활용 제품 만들어



전북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농업회사법인(취원년누리)과 함께 전주의 쌀과 밀을 활용한 '전주비빔면'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인 비

빔밥을 잇는 비빔빵에 이어 전주비빔면이 출시됐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농업회사법인(취원년누리)과 함께 전주의 쌀과 밀을 활용한 '전주비빔면'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비빔면의 면은 지역 밀가루를 활용해 식이섬유의 영양성분을 강화했다.

쌀가루를 첨가해 면의 쫄득한 식감을 살린 건강식으로 개발됐다.

비빔면에 채소와 육류 등 식재료를 조합해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 시장제품과 대비해 소스의 양을 20% 늘렸다.

연구원은 비빔소스에 대해 제조·가공 과정에서 동물로부터 유래한 원재

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건인증을 추진한다.

천년누리 전주시정점과 전주한옥마을점, 전주역점 등에서 판매된다. 이달 넷째 주부터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전국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향후 연구원은 농가와 기업 간 원료의 생산, 수요량 등의 분석해 다양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 소재화 연구를 이어가 지역농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오병준 원장은 "연구원은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 소재화를 통해 지역 농가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 전주방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및 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모델 출시...'발마사지 기능도'

더 2022 카니발도 출시...새 엠블럼 적용·침단사양 추가

기아가 12일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모델을 출시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바탕으로 하이리무진 전용 튜닝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을 최적화하고 2열 탑승객을 위한 차별화된 사양과 기능을 더했다.

기아는 4인승 모델을 역동성과 정숙성을 겸비한 스마트스트립 3.5 가솔린 단일 엔진으로 운영한다. 서스펜션 스프링 강성 및 속임소바 감쇠력을 최적화해 차별화된 승차감을 제공한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의 판매 가격은 8683만원(개발소비세 3.5% 기준)이다.

4인승 모델에 적용된 신규 편의사양은 ▲후석 리무진 시트 ▲7인치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발 마사지기 ▲냉·온장고 ▲후석 수납함 등이다.

기아는 후석 리무진 시트에 좌좌감이 뛰어난 최고급 시트포함 임체적인

클링 나파 가죽을 적용했다. 또 엉덩이·허리의 하중 분산 및 편안한 휴식을 돕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기능과 후석 시트 콘솔 내부에 좌·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석 전용 테이블을 탑재했다.

탑승객은 후석 시트 사이에 위치한 7인치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또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시트를 조작할 수 있다. 시트 외에도 후석 조명 및 공조,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 2열 좌측 전면부 하단에 위치한 발 마사지기 등을 통합 컨트롤러에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기아 최초로 4인승 모델에 적용된 발 마사지기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 '휴테크'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후석 리무진 시트와 함께 장거리 이동에 지친 탑승객에 편안한 휴식 경험을 선사한다.

뉴시스

중기부, 청년에 '좋은 일자리' 선별 제공키로

연봉 2700만원 이상·정규직 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연봉 2700만원 이상·정규직 등을 충족하는 '좋은 일자리'를 선별해 청년에게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추진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인 활동 중인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에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를 선별해 청년 구직자 간 매칭을 지원한다. 추진 기관 간 일자리 매칭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31일에는 중기부·교육부·고용부·중기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선정 대상 기업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등이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서 구인 활동 중이면서 ▲신용등급 BB-이상 ▲채용 조건에 연봉 2700만원 이상·정규직 등을 충족하는 기업 정보를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간으로 선별한다. 선별된 정보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인력포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에서 별도 전용관과 팝업 창 등을 통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만 15~34세·군필자 최대 만 39세)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인력포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의 인력풀에 등록하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와 구직 정보를 고려한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과 잡코리아 누리집에 전용 채용관을 설치해 일자리 정보와 재직 후기, 출퇴근 교통 편의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알람 서비스도 실시한다. 구인 기업에게는 잡코리아 인제 플 열람권 무료 제공, 채용고비용 맞춤 인재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기업인력포센터 누리집과 워크넷에 전용 채용관을 개설해 채용정보 제공, 인제·구인기업 추천 등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구인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 1인당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에 주류업계, '주름' 늘어나네

야간 시간대 유흥 시장 매출 기대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가 오늘부터 적용됨에 따라 주류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하반기부터 주류 취급점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모임 인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정반대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야간 시간대 활동에 통금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자 주류업계는 준비했던 판촉 행사를 뒤로 미루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정용 주류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25일까지 2주간 4단계로 격상했다. 사적 모임은 허용 인원 범위를 강화키로 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기업은 필수 경영 활동을 제외한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하반기 주류 사업 전략으로 흡술

제품을 통해 가정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동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흡술공 공략 차원에서 집콕족을 겨냥한 굿즈 출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대신할 수 있는 온택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신제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에는 호가들의 여름 한정판 제품과 필곳의 리뉴얼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편의점에서의 이색 협업 수제맥주들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한 신제품 출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성수기인 6-8월 테라리 브랜드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유튜브 등 비대면·온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하루 빨리 정상화된 일상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에 경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는 또 다시 여름 성수기 유흥시장 매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계 빅3는 대표

제품을 통해 가정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동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흡술공 공략 차원에서 집콕족을 겨냥한 굿즈 출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대신할 수 있는 온택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신제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에는 호가들의 여름 한정판 제품과 필곳의 리뉴얼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편의점에서의 이색 협업 수제맥주들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한 신제품 출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성수기인 6-8월 테라리 브랜드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유튜브 등 비대면·온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하루 빨리 정상화된 일상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에 경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는 또 다시 여름 성수기 유흥시장 매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계 빅3는 대표

서선욱 기자

롯데제과, 참새방앗간 20년만 재출시



롯데제과가 젤리 '참새방앗간'을 약 20년 만에 재출시했다.

1992년 복숭아, 포도, 사과 맛 총 3가지로 선보였다. 지난해 리뉴얼해 세 가지 맛을 한 봉지에 담았다.

기존 젤리보다 쫄깃한 식감을 강조

2002년 제품 콘셉트 적용

했다.

2002년 제품 콘셉트를 적용하고, 참새모양을 그대로 살렸다. 패키지에 1970~1980년대 사용했던 롯데제과 심볼 '해님 마크'를 넣었다.

'집 나간 참새가 돌아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예스러우면서 재미있는 요소를 강조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먼저 판매한다.

추후 다른 채널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장소비가 가격은 1000원.

뉴시스